

# 고등학교 문학 영역의 전통과 특질 관련 성취기준의 교재화 양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류 수 열\*\* · 김 세 림\*\*\* · 김 형 석\*\*\*\*

## ■ 목 차 ■

1. 서론
2.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에 대한 학술담론의 양상
3. 전통과 특질 관련 교육 목표의 교육과정사적 흐름
4. 전통과 특질 내용의 교재화 양상
5. 전통과 특질 관련 교육 담론 분석의 결론과 전망

## 국문초록

이 연구는 교육 현장에서 자명한 명제적 지식인 것처럼 전달되고 있는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이 갖는 한계와 허점을 살펴본 것이다. 학술 담론과 교육 담론에서 제시하는 한국 문학의 특질들이 정말 우리 한국 문학의 특질인지, 나아가 이러한 특질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며 합리적인지를 반문해 보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선대의 연구자들이 제시해 왔던 한국 문학의 몇몇 특질과 이에 대한 비판들을 하나씩 검토하였다. 또한 현재까지 학계에서 진행되어 온 특질 논의의 한계점 역시 비판적으로 되짚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역대 교육과정의 내용을 분석하며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이 문학 교육의 내용으로 제시되기까지의 배경과 과정을 검토하였다. 국어

\* 이 논문은 한국문학교육학회 제79회 학술대회(2018.8.17.)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완한 것이다. 발전적인 논의를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 강사.

\*\*\*\*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 박사과정 수료.

과 교육과정의 역사에서 한국 문학의 특질이라는 학습 요소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온 과정을 통시적으로 고찰한 것이다. 나아가 현행 교과서에서는 이를 어떻게 구현하고 반영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서 앞서 제기하였던 의문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은 교과서에서 다소 모호하게 진술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통과 특질로 제시되어 있는 항목들은 연구자의 자의적 규정을 이어받은 채 편찬자의 임의적 선택에 의해 구성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또한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사정으로 인해 형식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 문학의 특질에 대한 규정, 전통이라는 함의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회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관련 내용을 아예 삭제하거나 보편성과 특수성과 관련된 성취기준으로 흡수·통합하는 등의 방안에 대한 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 핵심어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 은근과 끈기, 멋, 송고미와 골계미, 한, 여성적 목소리, 학술 담론, 교육 담론

## 1. 서론

교육 담론은 학술 담론을 이어받아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학술적 탐구의 결과물이 공리(公理)로 인정되면 교육 담론으로 수용되어 학습자들에게 전수되는 절차를 밟는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학술 담론과 교육 담론 사이에는 착종이나 왜곡 등이 일어나기도 한다. 학술 담론에서는 시효를 잃어버려서 폐기되다시피 한 설명들, 혹은 새로운 시각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동요하고 있는 설명들이 교육 담론에서는 오랫동안 자명한 진리인 것처럼 교과서에 지속적으로 불박여 있는 경우도 많다.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도 그 중의 하나이다. 그동안 한국 문학의 특질

을 멋과 해학 등에서 찾으면서 이를 교육 내용으로 구성하여 왔던 역사가 깊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정말 우리 한국 문학의 특질일까? 나아가 과연 한국 문학의 특질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리고 이러한 특질이 곧 한국 문학의 전통으로 규정되는 것은 합리적인가? 이 연구는 교육 현장에서 자명한 지식으로 전달되고 있는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이 갖는 한계와 허점을 반성적으로 살펴보는 데 일차적인 목적을 둔다.

학계에서 여러 학자들에 의해 한국 문학의 특질들이 제시되고, 이것들이 목록화되면서 마치 한국 문학의 특질은 풍성한 것처럼 인식되기도 한다. 그러나 국문학 연구자들이 제시한 그 특질이 엄정한 과학적 방법에 의해 탐구된 결과가 아니라 직관적 인식에 의해 포착되고 인상 비평에 가깝게 설명된 자질이라면, 이를 교육 담론에서 수용하는 데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교육 담론으로 수용되는 순간 그것은 한 사회의 공리로 추대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그것이 민족주의적 기획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이다. 특정한 기획에 의해 포섭된 학습 요소일수록 더더욱 그것은 의심을 받아야 하고 그 의심이 합리적이라면 경우에 따라 폐기될 수도 있어야 한다. 이 연구가 의도하는 바도 사실 이러한 결과를 상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조윤제, 조지훈, 신동욱 등 선대의 연구자들이 제시한 한국 문학의 특질과 이에 대한 비판들을 검토하며 현재까지 학계에서 진행되어 온 특질 논의와 이에 대한 비판의 지점들을 되짚어 본다. 다음으로는 역대 교육과정의 내용을 통해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이 고등학교 문학 교육의 내용으로 구체화되기까지의 배경과 과정을 통시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이라는 학습 요소의 교육과정적 기원은 어디이며, 어떤 방식으로 현재까지 반복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현행 문학 교과서에서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에 관련된 내용들이 교재화되어 있는 양상을 두루 검토하면서 그 한계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후 교육과정 개정과 교재 편찬에 던지는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 2.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에 대한 학술담론의 양상

조윤제는 1955년 발간된 자신의 저서 《국문학개설》을 통해 한국 문학의 특질로 ‘은근과 끈기’를 꼽은 바 있다. ‘은근’은 표현 기법상의 특질이라 할 수 있는데, <춘향전>에서 춘향에 대한 묘사 장면이나 남구만(南九萬)의 시조 등에서 직설적인 표현을 피하고 우회적이고 여운을 남기는 수법 등을 그 예로 제시하였다. ‘끈기’는 이에 반해 정신(내용)적인 측면에서의 특질로, 정몽주(鄭夢周)의 <단심가>에서와 같이 신념을 지키는 자세, <가시리>에서 휘절됨이 없이 기다림의 고통을 이겨내는 변함없는 자세 등을 의미한다.

그러면 國文學은 어떠한가. 國文學은 民族生活의 表現이요 民族마음의 거울이다. 따라서 民族을 떠나서 國文學이 있을수 없고, 國文學을 버리고는 完全한 民族生活을 具體的으로 表現할수는 없는 것이니, 은근하고 끈기있는 民族의 生活은 國文學에 그대로 表現되어야 하고, 또 表現되지 않고서는 안될 것이다. 實로 國文學은 소길수 없이 民族의 生活을 그대로 表現하여 은근하고 끈기있었다. 여기 春香傳을 예로 들어 보겠다. 春香傳은 古典文學에 있어 傑作이라評하고, 主人公 春香은 絶對佳人, 萬古絶色이라 한다. 그러나 春香과 李道令의 로맨스 짝은 어데서도 있는 일이고 또 그러케 사람의 가슴을 놀랄만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春香傳을 읽어 보면 어딘지 모르케 좋고 몇 번을 읽어 보아도 좋다. 이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좋다는 點이 하나 하나씩 뚜렷이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는 거기는 餘白과 餘韻이 있어 은근한 맛이 있기 때문이다. (중략)

이러케 小說에서나 詩歌에서나 國文學은 은근하다. 이러한 은근은 또 저절로 끈기가 붙어 오는 것이니 春香의 美에나 性眞의 戀愛에는 끝이 없어서 끈기가 있고, 또 「가시리」에 보드라도 그칠줄 모르는 그 哀怨하는 情은 끝간데가 없어서 亦是 끈기가 있다.(중략)

이와 같이 國文學은 은근하고 끈기있다. 民族의 生活이 은근하고 끈기있어 自然美를 觀察하는 데 있어서도 은근하고 끈기있었고, 또 그 生活이 國文學에 表現되어 여기에 은근하고 끈기있는 文學을 낳았다. 勿論 國文學은 오직 은근하

고 끈기있다고만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외에도 또 다른 性格이 있다고 認定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나 그러나 ‘은근’과 ‘끈기’는 國文學의 하나의 重要的 特質이 될 것은 疑心할 수 없다.<sup>1)</sup>

또한 조운제는 민요가락과 남도의 육자배기, 서도의 수심가 등을 예로 들며 ‘가냘픔과 애처로움’을 이야기하기도 하였으며,<sup>2)</sup> 시조의 종장 첫 구에 나타나는 구절인 ‘두어라’와 노래 가락 등에서 발견되는 ‘노세’ 등을 그 자체로 한국 문학의 특질이라고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는 이러한 특질들이 시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단서로 달았다.

조운제의 특질론은 각각의 근거로 든 문학 작품의 예시가 너무 단순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여러 가지 개별 작품의 사례를 들어 특질을 추출한다면, 개별 작품마다의 특질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김윤식은 이러한 맥락에서 조운제의 특질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비판한 바 있다.

도남이 처음부터 국문학의 특질을 문제 삼았음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현상이다. 형식 논리학상에서 본다면 (1) 미의 식의 검토, (2) 국문학, 국학, 미술, 무용 등 각 예술 분야별 검토를 거쳐 (3) 한국 예술의 특질을 추출함이 원칙이다. 그 어느 것도 되어 있지 않은 마당에서 국문학의 특질부터 찾아낸 것이 도남이었다.<sup>3)</sup>

이는 조운제가 펼친 국문학의 특질론이 과학적인 탐색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학문의 대상으로 바라보았다면 그것에 맞는 엄밀한 논리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것이 결여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는

- 
- 1) 조운제, 『국문학개설』, 동국문화사, 1955, 468~479면. 맞춤법 및 띄어쓰기는 원문을 그대로 따랐다.
  - 2) 조운제, 위의 책, 480~490면 참조. 이는 일본인 학자인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가 고려의 청자, 조선조의 건축물과 예술 등을 들어 제시한 한국의 정서적 특징인 애상과 비애, 즉 ‘한(恨)’의 정서와도 상통하는 바를 할 수 있다.
  - 3) 김윤식, 「한국 문학의 특질에 관한 논의」, 『한국학보』 10, 일지사, 1984, 174~197면.

것이다. 이는 도남이 국문학을 ‘학문도 예술도 아닌 민족정신의 응집물’로 보았기 때문이며 그 원인을 ‘경성제대의 학문이란 것이 진정한 근대적 학문이 아니라 식민지에 세운 대학의 학문’이었다는 데 있다고 보았다. 그러한 조건이 ‘도남으로 하여금 근대적 학문을 거부케 한 심리적 동기’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 것이다.

김병국 또한 국문학 특질론에 대한 조운제의 견해를 ‘훌륭한 직관적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분히 주관적이고도 자의적인 면을 면치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비판한 바 있으며,<sup>4)</sup> 같은 맥락에서 한수영은 다음과 같이 평가를 내리고 있다.

조운제의 경우는 이 세 가지의 전통 인자가 자의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동시에 세 가지 모두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며 체념적 성격을 담고 있는 것들이다. 당시에도 이런 전통 해석이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이런 방법으로 찾아내자면 수 천 가지를 만들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문학의 전통 안에 엄연히 살아 있는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기상과 내용들은 이 세 가지 보편 인자에 포함될 자리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sup>5)</sup>

우리 문학사에서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기상과 내용을 담고 있는 작품이 없을 리 없다. 그렇다면 이들 작품들에게는 어떤 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인가? 더욱이 국문학의 일부 작품들이 설사 이러한 특질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 인자들이 가지고 있는 나약함과 소극성을 굳이 국문학의 특질로 일반화할 필요는 있을까?

한편 1964년 조지훈은 <멋의 연구>를 통해 한국적 미의식을 ‘멋’에서 찾아 제시하였다.

- 
- 4) 김병국, 「한국 문학 특질론-서양 문학과 비교에서」, 『한국시가문화연구』 1, 한국고시기문학회, 1993, 26면.
  - 5) 한수영, 「근대문학에서의 ‘전통’ 인식」, 김영민 외 9인, 『20세기 한국 문학의 반성과 쟁점』, 소명, 1999, 189면.

‘아름다움’은 ‘고움’과 ‘멋’의 바탕으로서 한국적 미의식을 대표하는 말이 된다. 다시 말하면 ‘아름다움’이란 말은 한국적 미 개념의 표상인 동시에 미 개념의 보편적 원리에 통용되는 말이다. 영어의 beauty나 불어의 beauté를 한국어로 번역할 수 있는 말은 ‘아름다움’이란 말뿐이요, ‘고움’이라든가 ‘멋’으로서 그것에 대처할 수는 없다. 이는 곧 ‘고움’이라든가 ‘멋’이 ‘아름다움’보다 더 특수적이며, 한국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중략) ‘고움’이야말로 한국적 미의식 곧 ‘아름다움’의 정통면을 대표하는 자이다. ‘고움’은 ‘아름다움’의 협의로서 아름다움의 개념보다 소규모의 구체적 개념이다. 역사적으로도 고움이란 말은 아름다움이란 말과 동시에 사용되었고, 그것은 현행어의 미려와 같은 뜻으로 쓰였던 것이다.(중략)

‘고움’의 정상미 또는 규격성으로서의 아래미를 뛰어넘은 변형미 또는 초규격성의 풍류미가 멋이다. ‘멋’은 한국미의식이 그 본래의 정상성을 déformer 해서 체득한 또 하나의 고유미이다. (중략) 멋은 먼저 형식상의 격식을 바탕으로 한다. 즉 격에 맞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격식에 맞는다는 것만으로 멋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격식에는 빈틈없이 맞으면서도 멋이 없는 예술과 행위를 얼마든지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뜻에서 본다면 멋은 격식에 맞으면서도 격식을 뛰어 넘을 때, 바꿔 말하면 격이 맞는 변격, 변격이면서 격이 제대로 맞을 때 거기서 멋을 느낀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초격미’라고 부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는 ‘변격이합격(變格而合格)’이요, ‘격에 들어가서 다시 격에서 나오는 격’이라 할 수 있다.<sup>6)</sup>

조지훈은 우리말에서 미를 표상하는 어휘로 ‘아름다움’과 ‘고움’, ‘멋’ 세 가지를 들었다. 그의 논리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고움과 멋은 아름다움보다 더 특수한 개념이며 고움과 멋을 포괄하는 것이 아름다움이란 개념이다. 고움은 세계 일반의 우아미에 통하는 것으로서 다른 민족의 미의식과 근사치를 찾기가 쉽지만 멋은 한국 미의식이 그 본래의 정상성을 데포르메(déformer)해서 체득한 고유미이다. 멋은 외국어로 번역할 수 없으므로 한국 사람만이 공통으로 느끼는 미적 가치인 것이다. 멋의 부분적 의미는 세계 일반의 미의식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멋은 한국

6) 조지훈, 「<멋>의 연구」, 1964『조지훈 전집』 8, 나남, 1996, 357~413면.

특수의 것이다.

요컨대 ‘멋’의 일부 속성을 표현하는 말은 있지만 그 개념을 완전히 포괄할 수 있는 외국어는 없기 때문에, ‘멋’ 안에는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사상과 생활의 특수성이 있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주장의 결론으로 ‘멋은 한국적 미의식’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과연 ‘한국 문학의 특질’인가에 대한 답으로는 적절한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이와 관련해서도 김윤식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 바 있다.

조지훈은 멋이 한국적 미의식이라고 말했는데 이 지적은 상당한 혼란을 거쳐 나온 것인 만큼 값진 결론이라 할 만했다. 미의식을 검출하는 방식은 그 문화권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의 용법의 분석에서 비롯되고 또 거기에 되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지훈이 <멋>의 용법을 광범위하게(역사적인 관점과 공시적 관점) 분석한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달리 말하면 조지훈은 한국적 미의식을 논의했을 뿐이지 결코 한국 문화·예술의 특질을 논의한 것은 아니었다. 한국 예술의 특질을 논의하기 위해서라면 오히려 한국 예술 작품을 분석·검토해야 되며, 그것은 멋이라는 말의 용법을 검토하는 것과는 레벨이 다른 일이다.<sup>7)</sup>

이와 같은 논리에서 본다면 한국 문학의 특질로서 ‘멋’을 내세우는 것도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 조지훈이 제시한 근거는 우리 ‘말’이지 우리 ‘문학’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 문학이 우리말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그것이 동일한 위상을 지닌 것은 아니다. 한국 문학의 특질을 논하기 위해서는 우리말의 용법이 아니라 한국 문학을 근거로 해야 타당한 근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980년대에 이르러 신동욱은 고전소설에서 근대소설에 이르는 미적 특성으로 송고미와 골계미를 들었다. <구운몽>과 <홍부전>을 들어 두 작품에서 나타난 대립적인 요소들이 우리 문학의 전반에 걸쳐 적용될 가능

7) 김윤식, 앞의 글, 190면.



성이 있다고 하였다. 두 미학의 대립이 근대로 이어짐을 밝히면서 김동인의 <배따라기> 및 김유정의 <동백꽃>과 각각 연결하여 전통의 계승 양상을 평가하고 있다.

이 작품(「배따라기」-인용자)은 「구운몽」이 보여준 숭고미를 곧장 이어 받은 것은 아니지만 서구와 중상층 문사의 자기중심적이고 관념적·현학적인 자유 수사(自由修辭)와 「구운몽」과 어떤 맥락이 닿고 있음을 알게 한다. 19세기의 리얼리즘이 플로베르적 심미(審美)에 퇴화되었을 때, 톨스토이는 자기 민족의 역사적 현실을 묘사하여 리얼리즘에 새롭고 젊은 힘을 부여한 바 있다. 그러나 동인은 어느 면에서 한국 문학의 퇴화와 위축 상태를 더욱 가속화시켰다고 비판할 여지를 남겨 놓았다.<sup>8)</sup>

위의 인용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운몽>의 숭고미가 김동인의 <배따라기>에 이어지고 있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김동인에 대한 비판을 아울러 함으로써 숭고미의 미적 특질이 발전적으로 계승되고 있지 못하다는 함의를 전달하였다. 물론 김동인의 문학적 기여는 부분적인 면에서 인정하고 있지만, 문학이 어떤 객관성에 도달해야 함을 전제로 하였을 때 김동인인 서구의 예술 지상주의에 영향을 받아 사물을 주관적 정서로 물들여 참된 객관성을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반해 김유정의 <동백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흥부전>에 나타난 골계미가 <동백꽃>에서는 두 인물의 성격 형상화 등에서 나타나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의 생계와 관련되어 있으며 동시에 사회적 위치를 밝혀주는 ‘닭’도 객관적 거리를 두고 묘사하고 있는 데서 골계미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작가가 인물의 현실적인 생활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인물들이 속한 세계를 훼손 없이 발굴하여 표현한 작가의 정직성 때문에 골계가 생겨난다고 보았다. 이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8) 신동욱, 『한국현대문학론』, 박영사, 1981, 49면.

이와 같은 고찰에서 유정이 「홍부전」을 읽었건 안 읽었건 간에 1세기 이상을 뛰어 넘어 골계미가 창조적으로 계승됨을 보게 된다. 실로 전통의 계승은 절실한 자각과 깊이 있는 사회의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sup>9)</sup>

신동욱은 여기에 덧붙여 송고미와 골계미를 동등한 가치를 지닌 미적 특질로 보고 있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특정한 개인 작가가 객관적인 태도’로 표현한다 하더라도 ‘공동작에서 이루어지는 것만큼 보편성을 지니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당대 사회를 총괄하는 일반성을 획득하는 것이 문학이 지녀야 할 중요한 가치라고 보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일제시대 <배따라기>에 나오는 ‘나약하고 도피적인 인물이 제공하는 패배주의의 감상미가 일제시대의 한국인 독자에게 읽혀질 무슨 가치’를 가질 것인가 하는 질문에도 깔려 있는 관점이다. 일제시대의 극복 측면에서 문학이 할 수 있는 일정한 역할은 무엇이었던가 하는 고민에서 <동백꽃>에 나오는 인물들의 건강성에 주목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송고미와 감상미가 분석된 작품에 의하건대 도취와 몰입을 통하여 객관적 가치를 변질시키는 것이 밝혀졌고, 이와는 반대로 골계미에서는 자유 수사에 침잠해 가는 주관적 몰입을 거부하여 객관적 가치를 드러냄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고전문학으로부터 근대 문학에 이르는 미적 특성으로서 보다 긍정적인 가치를 지닌 골계미가 비약적인 계승을 통하여 풍자 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주고 있음이 밝혀졌다.<sup>10)</sup>

한국 문학의 특질에 관한 신동욱의 논의는 그 대상이 소설에 국한되어 있다. 소설마저도 고전소설은 <구운몽>과 <홍부전> 둘뿐이며 근대 소설도 <배따라기>와 <동백꽃>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논의의 결과를 한국 문학 전반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하였더라도 그 대상의 협

9) 신동욱, 앞의 책, 52면.

10) 신동욱, 앞의 책, 52면.

소함으로 인해 이를 전폭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또한 전통이 비약적으로 계승되었음을 주장하기 위해 고전소설과 근대소설의 미적 특질을 연결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일대일의 줄긋기 형식 등 그 논의 전개에 엄밀성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이를 타당한 주장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다.<sup>11)</sup>

마지막으로 김동욱은 우리 문학의 특색으로 ‘아리랑과 흰 옷’을 들었다. 어느 나라 문학의 특색을 가장 뚜렷하게 드러내주는 것은 서사시와 민요라고 하여 <아리랑>에서 우리 문학의 개별성을 발견하였다. <아리랑>에서 찾을 수 있는 ‘흐리눅직한 반항의 자세’, ‘체념 속에서 정신적 승리를 맛보려는 약자의 반항’을 이야기한다. 한과 애수와 연결된 특징을 지니게 된 원인으로는 ‘대륙문학에서 한 발자국 물러선 자리’ 있음을 들었다. 이민족의 침입과 같은 환경이 우리의 한국 문학을 만들었다고 하였다. 흰 옷에서는 수수하고 순박한 문학 작품을 사례로 들었다. 이에 더하여 시조 ‘대조 불 붉은 골에~’와 ‘네 아들 효경 읽더니~’ 등의 작품을 들어 수수한 미를 이야기하였다. ‘웅대한 규모도 없고 멋있는 산야에서 대하는 오붓한 산야 밖에 없으니 이런 문학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글의 마지막 부분은 다음과 같다.

오늘날 우리는 르네상스 이후에 개성의 해방과 잡다한 사조를 연 바 있는 서구문학의 거대한 조류 속에 휩쓸리고 대립 상극하는 이념의 폭풍우 속에 어지러운 현대 문학의 도정을 겪고 있다. 여기서 동양적인 정관(靜觀)의 문학이 무엇을 기여할 것인가를 인식할 때 우리 왕조 문학의 특질 속에 나타난 병

11) 다만 신동욱의 논의가 지니는 의의는 다른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문학의 전통이 ‘격렬한 정치적 격동기’ 속에서 거의 단절되었다가 1920년대 소수의 작가들에 의해 다시 그 전통이 이어졌다고 보는 관점은 전통단절론을 주장하는 ‘사려 없는 지식인의 무책임’을 비판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송고미’와 ‘골계미’라는 미적 특질보다는 우리 문학이 전통을 부정하는 데 집중한 신문학 운동과 일제의 치밀한 억압 속에서 ‘순차적 과정’이 아니라 ‘비약적 계승 과정’을 밟아 그 진실한 가치를 보존하였음을 주장하게 된 계기에 집중하는 것이 맞는 듯하다.

폐적 요소를 지양하고, 서구 문학의 모방에 흐르지 않는 창조적인 문학 활동을 할 광장을 마련하는 것도 우리에게 맡겨진 중대한 임무가 아닐 수 없다.<sup>12)</sup>

이 견해도 자의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 수필문학에 실려 있는 것인 만큼 처음부터 저자 자신이 학문적 논의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크다. 수필로 읽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이러한 내용이 교과서의 문학 이론 소개 부분에 실려 있다면 교사와 학생 모두 오해를 할 수밖에 없다. 제목만 보면 한국 문학의 특질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한 것 같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자연과 정치상황에 대한 비하의 시선마저 엿볼 수 있다. 당대의 상황과 연결 지어 이해해야만 할 글이다.

이상 한국 문학에 대하여 각각의 연구자들이 제시한 대표적인 특질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연구자	한국 문학의 특질
조운제 (1955)	은근과 끈기, 애처로움과 가냘픔, ‘두어라’와 ‘노세’
조지훈 (1964)	멋
신동욱 (1981)	승고미, 골계미
김동욱 (1972)	아리랑과 흰 옷

이러한 규정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 본 대로 학계의 논의를 통해 각각의 한계점을 이미 비판받은 바 있다. 비판의 요체는 대체로 직관에 의존한 규정, 임의적인 작품 선택 등의 한계로 인해 한국 문학의 고유성을 합리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였다는 평가로 집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 김동욱, 『아리랑과 흰 옷』, 『아리랑과 흰 옷: 나순만록』, 개문사, 1977, 167면.

### 3. 전통과 특질 관련 교육 목표의 교육과정사적 흐름

한국 문학의 특수한 성질과 전통을 국어과의 교육 내용으로서 다루어야 한다는 인식은, 해방과 더불어 시작된 초창기 국어교육의 출발선상에서 당연한 것으로 공유되었을 것이다.

교수요목기(1946~1954)부터 중학교 국어의 교수 방침으로 학습자에게 “국어 국문의 전통과 그 표현을 이해하게 하고, 국어 국문의 사적(史的) 발달을 구명하여, 종래의 사상 문화의 연원과 발달을 자세히 알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sup>13)</sup> 1차 교육과정(1954~1963)과 2차 교육과정(1963~1973)에서 역시 현대 문학에까지 계승되고 있는 한국 문학의 전통을 학습자들에게 교육할 것을 교육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sup>14)</sup> 그러나 이른 시기의 교육과정에서는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 요소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며, 당위적인 수준의 언급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후 3차(1973~1981), 4차(1981~1987) 시기의 교육과정 내용에서는 ‘전통’ 또는 ‘특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5차 시기(1987~1992)의 교육과정에서부터라 할 수 있다. 이때의 교육과정 내용을 살펴보면, 고등학교의 국어과는 ‘국어’, ‘문학’, ‘작문’, ‘문법’ 과목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국어’ 과목은 다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언어, 문학의 내용 영역으로 구성되는데, 문학 영역에 해당하는 교육 내용으로 “문학의 본질과 한국 문학의 특질을 파악”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여

13) 1차 이전 중등학교 “국어” 교수 방침(1946). 이후 각 시기별 교육과정과 교육과정 해설서의 인용은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ncic.re.kr)에서 제공하는 역대 교육과정 자료를 인용하였다.

14) 1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어” 지도 내용(1955), 4. 고전 학습 - “현대 문학에 계승될 고전 문학의 전통을 연구하고 이해한다.”  
2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어 1” 지도 목표(1963), - “현대 문학에 계승된 고전 문학의 전통을 연구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에 대한 교육과정 해설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 문학의 특질’을 본격적으로 다루게 된 배경을 추리해볼 수 있다.

5차 교육과정 국어과 ‘국어’ 과목 교육과정 해설(1988)

(문-1) 문학의 본질과 한국 문학의 특질을 파악한다.

… 문학의 본질에 대한 일반적 수준의 이해가 이루어지고 나면, 이를 한국 문학이라는 개별적 공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흔히 문학 일반이 갖는 원리나 현상에 대한 것은 단순한 이론으로 처리하고 한국 문학 작품 자체를 문학 일반적 관점에서만 지도함으로써, 한국 문학적 특질을 학습자가 탐구적으로 접근해 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배려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한국 문학의 특질은 일반론적인 설명보다는 각개 작품을 통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배려는 장르론과 주제론의 영역에서 고르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국문학 장르에 대한 학습은 그것의 발생 배경, 향유 계층, 시대적 감각 등과 결부하여 설명해 줌으로써, 한국 문학의 특질에 대한 이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 문학의 특질에 대하여 장르론의 영역과 주제론의 영역에서 동시에 접근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보통과 구별되게 다른 성질’이라는 ‘특질’의 사전적 정의를 따를 때, ‘한국 문학의 특질’은 ‘보통의 일반적인 문학과는 다른 한국 문학만의 성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특질은 다른 나라의 문학에는 나타나지 않는 한국 문학의 갈래(시조, 가사 등)라고 볼 수도 있고, 한국 문학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내용상의 특징(한, 해학, 풍자 등)이라고 볼 수도 있다. 5차 교육과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한국 문학의 특질은 갈래상의 특질과 내용상의 특질을 동시에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전 시기인 4차 교육과정에서 고전 문학의 학습에서 시조, 가사 등 국문학의 하위 갈래와 갈래별 특성에 대한 이해가 주된 내용이었던 점과 비교했을 때 차별성을 지닌다.

또한 이전까지의 교육과정이나 실제 교육 현장에서 한국 문학 작품이 문학의 일반적 원리나 현상을 학습하기 위한 제재로만 활용되었던 데 대

한 반성적 인식도 확인할 수 있다. 교육과정 해설서에서는 개별 작품을 통해 문학의 일반적 특성이나 원리를 습득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한국 문학의 특질에 대해 ‘탐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의식은 5차 교육과정 국어과의 또 다른 하위 과목인 문학 과목의 교육내용 해설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5차 교육과정 국어과 ‘문학’ 과목 교육 내용

<문학의 본질과 한국 문학의 특질>

4) 한국 문학의 특질을 이해한다.

[해설서] (...) 내용 목표의 진술은 ‘이해’로 되어 있지만 이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 문학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그 가치를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 근대 문학의 특징으로 여성적 편향, 부의식의 회복 내지는 옹호, 자조적인 풍자성 등을 거론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여성적 편향이란 근대 시인들의 발상법과 어투에서 찾아지는 특질이다. 부의식의 회복과 옹호는 전통적인 가치관에 대한 맹목적인 지향을 뜻한다. 자조적인 풍자성은 이상의 절망과 김유정의 토착적인 유머 등에서 그 근거를 찾는다.

이상의 내용으로부터 유추해보면, 5차 교육과정에서 한국 문학의 특질론이 대두하게 된 배경에는 한국 문학 작품의 학습이 문학의 일반적 원리에 대한 학습에 그치지 않고, 한국 문학의 독자적 가치와 의의를 탐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목적의식이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한국 문학에 나타나는 독자적 특성의 예시로 근대 문학의 여성적 목소리, 풍자성 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교육과정 해설서에서는 이러한 내용 예시에 대하여 ‘내용에 대한 검토 없이 직설적인 가치의 항목으로 주입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한국 문학의 여러 특징들이 나타나게 된 사회·역사적인 조건을 검토하는 한편, 학습자들이 작품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해하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5차 교육과정의 문학 과목 교육 내용 중 한국 문학의 전통과 관련된 내

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 문학의 민족 문학적 특성>

- 2) 한국 문학의 전통성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민족 문학의 특성을 이해한다.

[해설서] 문학 양식 측면에서의 전통은 장르 변이의 규칙성에 유의하여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정 양식의 경우 고대시가에서 향가, 고려 가요, 시조, 사설시조부터 현대시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가하는 점을 검토하면서, 거기 나타나는 지속성과 변화의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문학의 양식은 현상적인 변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구조 혹은 형식이 변한다. 이 내적인 형식은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과 철학에 관련된다. 예컨대 시조는 유교적인 세계관을 반영하는 균제된 양식이다. 거기 비해 유교적인 세계관이 반성되는 시점에서는 그 양식이 파괴되면서 사설시조가 나타난다. 소설의 경우는 영웅 소설이 주조를 이루다가 민중들의 의식이 성장하고 현실적인 세계관이 자리를 잡으면서 세속적인 풍자성을 띠는 경향을 보인다. ... 영문학에서 유머가 하나의 전통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면, 불문학의 경우는 지성이 전통을 이루는 특징이다. 한국 문학의 경우, 시조나 고소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상적인 세계에 대한 지향이 두드러진다는 것과, 처용가, 판소리, 그리고 근대의 풍자 소설에 드러나는 바와 마찬가지로 유머가 전통을 이루는 여러 항목 중의 두드러지는 예이다.

- 3) 세계 문학 속에서 한국 문학의 특성을 이해하고, 민족 문학으로서의 한국 문학에 긍지를 가진다.

[해설서] ... 한 나라나 민족의 정서는 논리를 초월하는 본원적인 것이다. 이는 문학의 구체성으로 나타난다. 한국 문학의 경우 한(恨)의 정서가 자주 거론된다. 그에 대한 평가는 다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정서가 한국 문학의 한 특징을 이루는 것은 사실이다.

위 내용에 따르면, 5차 교육과정에서는 여러 갈래들의 생성과 변화에 작용하고 있는 인식과 철학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 문학의 전통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이에 대한 예시로 ‘시조=유교적 세계관의 반영’, ‘사설시조=



유교적 세계관의 반성', '민중의 의식 성장→소설에서의 세속적 풍자성 강화'와 같은 예를 들고 있다. 또한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한국 문학의 두드러지는 전통으로 '유머'와 '한'의 정서를 제시하고 있다. 교육과정 해설서에 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 내용의 예시들은 해당 갈래의 작품들을 다소 거칠게 일반화한 결과이거나 작성자의 주관이 과도하게 작용한 결과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교육과정 해설서 역시 '한국 문학의 전통에 대해 편견을 갖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한국 문학의 전통이라 할 만한 항목들이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작품에 대한 체험을 통해 발견되어야 한다'고 서술하며, 학습자가 활동을 통해 한국 문학의 전통을 탐색하고 발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과정의 의도가 교과서에 제대로 실현되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의 품을 수밖에 없다. 5차 교육과정의 내용에 따라 제작된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에서는 '한국 문학의 전통적 흐름의 특성'이라는 단원을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한국 문학의 특질을 제시하고 있다.

## 2. 한국 문학의 특성

학습목표 1. 한국 문학의 정한의 세계에 대하여 안다.

2. 한국 문학의 해학과 풍자의 미학을 안다.

3. 한국 문학의 조화와 풍류의 정신을 안다.

**정한의 세계:** 이별의 정한은 '황조가', '서경별곡', '정과정곡', 황지이의 시조, 정철의 '사미인곡', 김소월의 '진달래꽃'에 이르기까지 우리 시가의 가장 중심을 이루는 정서라고 할 수 있다. 현실적인 시련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여 내면화하였을 때 나타나는 깊은 슬픔인 한은 우리 민족의 험난했던 역사의 전개 과정에서 우리 민족에게 저절로 스며있었던 정서임에 틀림없다. 이런 정한의 정서는 애처로움과 가냘픔으로 변용되어 우리 문학의 여성적인 섬세함을 잘 드러내는 경우도 있다.

**해학과 풍자의 미학:** '홍부진' 춘향전 '등의 조선 소설의 풍부한 웃음, 봉산탈춤에서 양반에 대한 통렬한 야유, 민요에서 볼 수 있는 번득이는 현실 비판, 채만식의'대평천하'에서 시원스럽게 나타는 풍자 등은 한국 문학의 특성

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주로 평민 계층의 건강한 삶을 반영하는 해학과 풍자의 정신은 현실적인 시련을 극복하려는 낙천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우리 민족성의 문학적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조화와 풍류의 정신:** 우리나라의 자연은 부드럽고 아름답다. 이런 속에서 자라난 우리 문학은 여유와 품위를 지니는 아름다움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약간의 변형을 통해 전체적인 조화에 더욱 화력을 주는 풍류와 멋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사대부의 시가 문학이나 ‘관동별곡’ 등에서 잘 나타나며, 사설시조의 과격의 미 또한 이러한 한국 문학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sup>15)</sup>

단원 도입부의 위와 같은 설명문과 단원의 학습 목표는 다분히 선언적 지식의 전달에 해당하는 것이다. 교육과정 해설서에서는 학습자가 개별 작품들을 탐구하며 스스로 한국 문학의 특질을 발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을 권하고 있지만, 실제 교과서로 구현되는 과정에서는 그러한 교육과정의 의도가 충실히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6차 교육과정(1992~1997)에서는 고등학교 국어의 하위 영역인 ‘문학’과에서 ‘한국 문학과 세계 문학’이라는 내용 영역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하위 내용으로 “① 한국 문학의 개념과 성격을 이해한다.”를 설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설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 문학은 한국인이 한국어로 한국적 정서를 형상화한 것으로 규정된다. 한국인이라는 말은 국적 차원이 아니라 민족 차원의 개념이다. (중략) 한민족의 동질성을 유지하는 한국적 정서란, 한국인이 삶을 영위해 가는 동안 이루어진 정신적인 경향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는 자연을 대하는 태도,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 세계를 파악하는 방식 등이 포함된다. (중략) 문학 교실에서 한국 문학의 특질을 설명하는 데에 민족 정서라든지 정통성 등을 단순한 관념으로서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학생들이 한국 문학 작

15) 구인환, 『(고등학교)문학』, 한샘교과서, 1992(교육부 검정 1989. 8. 19), 212면. 여기에는 1980년대까지 진행되어 온 연구자들의 논의(한의 정서, 조운제가 제시한 ‘애처로움과 가냘픔’, 조지훈의 ‘멋’, 신동욱의 ‘숭고미’와 ‘골계미’ 등)가 각각 ‘정한의 세계’, ‘조화와 풍류의 정신’, ‘해학과 풍자의 미학’ 등으로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품을 읽어 가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한국 문학의 특질을 암기하는 식으로 문학 수업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지양되어야 한다.

이 해설서의 내용에 따르면, 한국 문학의 동질성은 ‘한국적 정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 ‘한국적 정서’를 한국 문학의 특질과 연관 짓고 있다. 여기에서 ‘한국적 정서’의 예로 제시하고 있는 ‘자연을 대하는 태도’,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 ‘세계를 파악하는 방식’ 등은 현재까지 교육 현장에서 한국 문학의 특질로 거론되는 ‘자연친화적 태도’, ‘풍자와 해학’, ‘현세 중심과 인간 중심의 세계관’ 등으로 각각 그 흐름이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7차 교육과정(1997~2007)에 이르러서는 중학교 ‘국어’에서도 한국 문학의 특질과 역사적 전개 과정에 대해 다루도록 교육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이전 교육과정까지 해당 내용이 고등학교 문학 과목의 내용으로 다루어졌던 점과 비교할 때 눈에 띄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 7차 교육과정 국어과 학년별 내용 <9학년> -문학-

##### (1) 한국 문학의 개념과 특질을 안다.

[수준별 학습 활동의 예]

기본: 한국 문학과 한국 문학이 아닌 것을 구별하는 기준을 말한다.

여러 갈래의 한국 문학 작품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질을 말한다.

심화: 한국 문학의 개념과 특질을 작품을 예로 들어가면 설명한다.

[해설서] ‘한국 문학의 개념과 특질을 안다는 것’은 한국 문학에 대한 애정과 긍지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 문학에 대한 가치를 체험하는 것임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 이 내용을 선정하였다.

한국 문학이란 한국인 작가가 한국인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한국어로 한 민족의 정서를 형상화한 문학이다. 한민족의 정서는 한국인의 삶을 영위하는 동한 형성된 정신적인 경향이라 할 수 있다. 한민족의 정서에는 자연을 대하는 태도와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 세계를 파악하는 방식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7차 교육과정의 중학 교과서의 집필진은 ‘한국 문학의 개념과 특질’이라는 설명문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 문학의 특질은 여유로운 시 형식, 양식의 다양성, 현실 중심의 문학, 인간 중심의 문학, 자연 친화의 문학, 웃음으로 눈물 닦기(해학)등으로 정리하고 있다.<sup>16)</sup>

그런데 해당 내용에 대한 해설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앞서 본고에서 인용한 6차 교육과정의 해설서 내용을 거의 그대로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교육과정이 앞선 시기의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이 필요한 지점이다. 그러면서도 해설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해설서 필자들이 보여주는 조심스럽고 유보적인 태도이다. 각각의 특질들을 명시적인 지식으로 학습의 장에 노출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듯, 필자들은 적극적이지는 않더라도 그 특질 항목들이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데 대한 우려와, 그것이 한국 문학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가능성에 대한 경계를 노정하고 있는 것이다.

## 4. 전통과 특질 내용의 교재화 양상

### 4.1. 특질 항목의 선정 현황

현행 교과서에서는 ‘전통과 특질’을 중요한 단원으로 설정하고 교과서마다 다루고 있다. 물론 이는 선행 교과서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던 양상이었고, ‘전통과 특질’에 대한 성취기준이 있는 한 앞으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장에서 대략적으로 밝힌 바대로, 선행들이 제시하였던 전통적 특질은 ‘멋’, ‘은근과 끈기’, ‘한과 신명’, ‘해학과 풍자’, ‘자연친

16) 김대행, 「한국 문학의 개념과 특질」, 한국교원대학교·고려대학교 국정도서편찬위원회, 『(중학교) 국어』 3-2, 교육인적자원부, 2003.

화적 의식’, ‘형식적 정제미와 운율감각’, ‘흥’, ‘현세 중심과 인간 중심’, ‘여성 화자의 목소리 사용’ 등으로 정리된다. 4장에서는 이 특징들이 교과서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현행 교과서 총 11종의 본문에서 작품을 활용하거나 학습활동을 통해 한국 문학의 특질을 언급하고 있다. 다만 교과서에 따라 소단원으로 ‘보편성과 특수성’을 함께 다루고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제외하고 ‘전통과 특질’을 다루는 소단원만을 대상으로 정리해 보면 그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sup>17)</sup>

	몇	은근/ 끈기	한/ 신명	해학/ 풍자	자연 친화 의식	형식적 정제미 /운율 감각	흥	현세/ 인간 중심	여성적 목소리	기타
(가)				홍보가				속미인곡	○	
(나)	○	○	초혼	홍보가	상춘곡					
(다)			○	택들에*/ 맹진사 택 경사	강호사 시가					
(라)	○		○	봄봄	짚방석*/ 산이 날 에워 싸고					
(마)	○	○	바리 공주/ 동짓달*	두터비 풍리틀~	십년을 경영 흥야		○		동짓달*	임격정 (민중)
(바)			○	태평 천하		○			속미인곡	

17) 표에서 (가)~(카)의 출판사 및 대표 저자는 다음과 같다. 이하에서는 각각의 교과서를 이 번호로 지칭된다.

(가) : 비상교과서(우한용), (나) : 해냄에듀(조정래), (다) : 미래엔(윤여탁), (라) : 비상교육(한철우), (마) : 창비(박종호), (바) : 천재교과서(정재찬), (사) : 두산동아(김창원), (아) : 좋은책신사고(이승원), (자) : 천재교육(김윤식), (차) : 상문연구사(김대용), (카) : 지학사(권영민)

	멋	은근/ 끈기	한/ 신명	해학/ 풍자	자연 친화 의식	형식적 정제미 /운율 감각	흥	현세/ 인간 중심	여성적 목소리	기타
(사)			속 미인곡	대들에*/ 봉산 탈춤	도산십 이곡				자술	홍계 월전 (민중)
(아)	○	○	○	태평 천하/ 홍보가	상춘곡	○	○	○		
(자)	난초 4	○	추억 에서		○					바리 공주 (여성 수난 모티프)
(차)	○	○	○	봄봄/ 시집살 이노래	○			○		
(카)	○		○	유자 소전		접동새				
계	7	5	10	10	9	3	2	3	4	3

\* 대들에: 대들에 동난지가 사오(사설시조). \*짚방석: 짚방석 내지 마라(한호). \*동짓달: 동  
짓달 기나긴 밤에(황진이).

위의 표에서 작품명 없이 ○으로 표시한 칸은 해당 특질이 제시되는 작  
품 안에서 설명되지 않고 설명으로만 나타나는 경우에 해당된다. 그리고  
'A와/과 B'의 형식으로 연결된 특질의 경우 작품 안에 그 항목이 모두 포  
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김소월의 '초혼'의 경우 '한'의 특질  
에 해당되는 작품이며 '신명'의 예로 제시되지는 않았다. '멋', '은근과 끈  
기', '형식적 정제미와 운율 감각', '흥'의 경우 정확하게 해당되는 고전  
작품 없이 전체를 아울러 설명하는 특징으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현대의 두 작품을 사용한 것이 눈에 띄는데 이병기의 '난초4'와 김소  
월의 '접동새'가 그에 해당된다. (자)의 경우 작품을 제시하지 않았어도

‘멋’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 아름다움과 고움, 멋의 차이를 밝힌 것이 다른 교과서들과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은근과 끈기’는 조운제가 언급한 ‘은근과 끈기’, ‘애처로움과 가냘픔’, ‘두어라와 노세’를 모두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조운제가 말했던 국문학 특질이 모두 드러나는 작품은 제시되지 않았는데, 본문의 설명에서도 세 분류의 특징 중 일부분만 취하여 설명하고 있다. (아)에서는 ‘두어라와 노세’를 제외한 나머지만 언급했으며, (차)에서는 ‘은근과 끈기’만을 강조하고 나머지는 모두 생략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과 신명’에서는 박재삼의 <추억에서>와 정철의 <속미인곡>, 설화 <바리공주>, 김소월의 <초혼>에서 한이 드러나는 것으로 보았고, 그 외의 다른 교과서에서도 한과 신명을 함께 묶어 같은 작품으로 설명하는 경우는 없다. (바)와 (아)에서는 신명에 대한 설명이 없고 (카)에서는 한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이 그 예이다. (사)에서는 한국 문학의 역사를 소개하며 해당하는 작품을 언급하는 형식으로 교과서를 구성하고 있다. 이렇듯 현행 교과서에서는 ‘멋’과 더불어 ‘한과 신명’을 중요한 한국 문학의 특질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서도 11종 중 반이 넘는 교과서에서 ‘한과 신명’과 관련된 개별 작품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 볼 만하다.

반면 ‘해학과 풍자’는 개별 작품을 모두 제시한 것이 돋보인다. <홍보가>와 <시집살이 노래>, 채만식의 <태평천하>를 통해 해학을, <맥들에 동안지이 사오>와 <태평천하>를 통해 풍자를 드러내고 있다. <태평천하>의 경우 동일 작품을 두고 약간의 견해 차이를 드러낸 경우에 해당된다. (아)에서는 <태평천하>를 바탕으로 풍자만을 다룬 데 비해, (바)에서는 풍자와 해학 모두를 다루는 차이가 보인다.<sup>18)</sup> 풍자와 해학이 모두 드러나는 다른

18) (바)에서는 ‘해학과 풍자’를 민중적인 것으로 보고 이에 대응하는 사대부의 특질로 ‘품위와 위엄’을 제시한 점이 특징적이다. “해학과 풍자가 민중적인 속성을 지닌 것이라면, 사대부 계층의 문학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질은 품위와 위엄이다. 이는 유교 사회에서 중시되었던 선비의 기질과 지조의 정신에서 비롯되었다.” 정재찬 외, 『문학』, 천재교과서, 2013, 121면.

작품으로 이문구의 〈유자소전〉을 드는 사례도 발견된다. 김유정의 〈봄봄〉은 (가)에서는 학습활동 차원에서, (라)에서는 본문에서 다루는 등의 차이는 있으나, 고전문학 작품과 함께 묶어서 해학의 전통이 이어지는 사례로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 화자의 목소리<sup>19)</sup>가 한국 문학의 전통에 가깝다고 본 교과서는 세 종류였다. (사)의 경우 앞의 단원에서 제시한 〈서경별곡〉부터 현대의 〈진달래꽃〉에 이르기까지 여성 화자의 목소리로 노래하는 것이 곧 전통을 계승하는 현상이라 보기도 했다. (가)에서도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 정서를 표출하는 방식이 ‘전통’으로서 계승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기도 하다.

그 외에 (마)에서는 황진이와 〈동짓달 기나긴 밤을~〉을 통해 이별의 ‘정한’과 ‘그리움’을 담아내려 하였다 하였고, 교과서에서는 보기 드물게 ‘골계미·우아미·비장미·숭고미’의 개념을 직접 노출하고 설명함으로써 한국 문학의 특질을 미적 특질을 중심으로 제시하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아)에서는 ‘지조와 절개’, ‘풍류’, ‘관대함’과 ‘악의 없음’이 한국 문학의 전통 특질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카)에서는 ‘해학과 풍자’와는 별도로 ‘웃음’을 제시하는 것이 특기할 만하다.

설명을 통해 한국적 전통과 특질을 한 단원에서 모두 담아내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경우도 있다. (아)에서는 전통과 특질에 대한 거의 모든 개념 용어를 언급하여 포괄적으로 설명하려 시도하였다. 단원에서 사용된 작품은 〈태평천하〉, 〈홍보가〉, 〈상춘곡〉이지만 단원의 본문에서 작품을 통해 설명되지 않는 특질 항목을 두루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나타난다. 〈홍보가〉와 〈상춘곡〉을 제시하였다는 공통점을 지니면서도, 여타의 특질 항목을 설명으로 대체하는 식이다.

‘형식적 정제미와 운율 감각’의 특질은 2종의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19) 5차 교육과정에서 한국 근대 문학의 특징으로 여성적 목소리를 내세운 이후 교과서에 이 특질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 본고의 3장에서 해당 교육과정의 내용이 정리되어 있으므로 본 장에서는 생략한다.



데 그 설명이 유사하다. (바)는 ‘우리 고유의 시가 양식에서 우리나라의 형식적 정제미와 운율 감각’을 형식적인 특질로, (아)는 ‘3음보나 4음보 중심의 형식적 정제미와 운율 감각’을 표현 형식상의 특질로 내세웠다.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사실은 교과서 편찬자들이 이러한 설명을 내세우면서도 스스로 이에 대한 확정을 유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태도는 가령 다음과 같은 진술을 통해서 드러난다.

한국 문학의 특질은 전통의 계승과 재창조 과정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이를 객관적으로 규정하거나 단일한 자질로 제시하기는 어렵다. 한국 문학의 특질은 그것을 파악하는 관점이나 추출하는 문학 양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까지 한국 문학의 특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sup>20)</sup>

교과서 (나)에서 이러한 설명을 추가한 것은,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한국 문학의 특질을 객관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사실에 대한 고백에 다름 아니다. 성취기준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는 사정이 함축되어 있는 고백으로서, 특질에 대한 접근이 여타의 학습 내용에 비해 그만큼 모호한 실제임을 이미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이처럼 각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국 문학의 특질은 일단 제각각이고, 그마저도 대부분은 작품을 통한 접근보다는 나열적인 설명식 정보로 주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교과서 편찬자들이 이러한 특질 규정에 대해 스스로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이는 특정한 자질을 한국 문학의 특질로 객관화, 일반화하기 어려운 사정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 조정래 외, 『문학』, 해냄에듀, 2013, 141면. 이와 유사한 취지의 진술은 다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 문학의 특질을 규정하는 일은 쉽지 않다. 한국 문학 또한 사회의 변화에 따라 함께 변화되는 과정에 놓여 있으므로 한국 문학의 특질을 어떤 고정된 실체로 받아들이지 않는 편이 온당하다.” 윤여탁 외, 『문학』, 미래엔, 2013, 164면.

## 4.2. 특질 관련 학습 활동의 구성 방식

이제 학습자들이 한국 문학의 특질과 전통을 학습하도록 이끄는 학습 활동의 구성 양상을 살펴 보기로 한다. 이와 관련된 구성 방식은 그 방향에 따라 연역식, 귀납식, 혼합식으로 대별될 수 있다.

먼저 연역식 구성이다. 이는 설명을 통해 전통과 특질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 후에 제재로 제시된 작품에서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흐름으로 구성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나) [작품 : <상춘곡>(정극인)]**

4. <상춘곡>과 다음 작품들의 공통점을 한국 문학의 특질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해 보자.

<십년을 경영하여~>(송순)

<거산호·Ⅱ>(김관호)

**(아) [작품 : <상춘곡>(정극인), <산이 날 에워싸고>(박목월)]**

- (1) '상춘곡'과 '산이 날 에워싸고'에서 의미가 대응되는 시구를 찾아 묶어 보자.
- (2) (1)을 바탕으로 두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화자의 가치관을 파악해 보자.
- (3) 전통의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두 작품이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해 모둠별로 토의해 보자.

(나)에서는 작품 제시 이전에 여러 특질 항목들을 설명하고 있는 바, 이 활동은 이를 염두에 두고 주어진 작품을 통해 그 특질 중의 하나를 읽어내라는 지시이다. 개별 작품에 드러나는 어떤 특질이 여러 특질 항목 중 어느 것인지를 판단하라는 지시이므로 결국 객관식 문항과 크게 다를 바 없는 형국이 된 셈이다. 여기에서 나아가 고전문학 작품과 현대문학 작품을 나란히 병렬시킴으로써 이를 전통이라는 개념으로 포섭하고자 하는 의도도 깔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아) 또한 학습 활동의 구성에서 이와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보여준다. 다

만 전통의 개념을 다소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나)와는 약간의 차이를 보여준다. 곧 (3)번 활동을 통해 특정한 자질이 과거와 현대의 개별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면 이는 곧 하나의 전통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논리를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연역적 구성의 흐름은 설명을 통해 이미 규정한 한국 문학의 특정한 특질 항목을 본 제재나 학습활동에서 부가된 작품 안에서 찾고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다. 특질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맞추어진 개념에 적합한 특질 항목 중의 하나를 ‘연결’하는 과정인 셈이다. 그리고 과거와 현대의 개별 작품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이 곧 하나의 특질이자 전통이라는 논리를 깔고 있는 것이다.

드물기는 하지만 이와는 반대의 흐름을 보이는 귀납식 구성도 있다. 다음과 같은 사례가 여기에 해당된다.

(라) [작품 : (가) <짚방석 내지 마라>(한호) / (나) <산이 날 에워싸고>(박목월)]

1 (가)에서 화자가 ‘짚방석’과 ‘술불’을 거절한 이유를 작품에서 찾아보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화자의 태도를 말해 보자.

2 (나)의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가)와 비교하여 생각해 보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한국 문학의 특질은 무엇인지 말해 보자.

이 학습 활동은 ① 고전 문학 작품과 현대 문학 작품의 공통점 발견하기→② 그 공통점을 특질로 규정하기→③ 그 특질을 한국 문학의 특질로 일반화하기의 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요컨대 귀납식 구성은 개별 작품들의 특질을 ‘발견’해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문학의 특질을 무엇으로 규정할 수 있을지를 물음으로써 특질에 대한 규정을 학습자의 권한으로 이양하는 흐름을 갖는다. 이러한 활동 구성은 일차적으로 연역식 구성에 비해 훨씬 더 구성주의적 성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 보면, 단원에 주어진 설명적 정보를 통

해 학습자들이 이미 한국 문학의 특질에 대해 어느 정도 학습한 뒤에 규정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연역과 완전하게 대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표면적으로만 귀납식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귀납식 흐름과 연역식 흐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도 보인다.

**(바) [작품 : <속미인곡>(정철)]**

3. (가)는 고려 속요이고, (나)는 현대 시이다. 잘 읽고 아래 활동을 해 보자.

- |                                 |
|---------------------------------|
| (가) 정서, '정과정'<br>(나) 한용운, '해당화' |
|---------------------------------|

- (1) '속미인곡'의 시적 화자와 (가), (나)의 시적 화자를 비교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세 작품의 공통된 정서는 무엇인지 말해 보자.
- (2) (1)의 활동을 통해 알 수 있는 한국 문학의 특질을 파악해 보고, 현대 작가의 작품 중에서 이와 같은 특질이 나타나 있는 작품을 찾아 발표해 보자.

이 학습 활동은 일단 앞의 귀납식 흐름에서 정리된 ①~③의 단계를 차례대로 보여준다. 그런 후에 다시 이와 동일한 특질이 나타나 있는 다른 작품을 찾아 보라는 요청으로 이어진다. 귀납을 통한 일반화 이후에 다시 일반화된 특질을 개별 작품을 통해서 확인하는 학습의 흐름이라는 점에서 혼합적이면서도 순차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역시 설명식 정보를 통해 몇 개의 특질 항목이 먼저 학습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연역적일 수밖에 없는 구도를 지닌다.

이상에서처럼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과 관련된 학습 활동은 연역식 구성, 귀납식 구성, 혼합식 구성의 흐름으로 구별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별은 표면적인 흐름을 기준으로 한 결과일 뿐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결국 연역적인 구도를 취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각각의 구성에서 보이는 몇 가지 한계를 짚어 보기로 한다. 연역식 구성은 특정한 특질 항목을 학습자로 하여금 제제로 주어진 작품에서 찾

아 내도록 요구한다는 점에서 다소 일방적이고 폐쇄적이다. 학습자로서는 사고의 자율성을 발휘할 여지가 거의 없다. 귀납식 구성은 연역식 구성에 비해 학습자의 발견적 접근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다소 개방적이다. 그러나 결국 한국 문학 일반의 층위로 그 결과를 확산시키도록 함으로써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내재하고 있다. 더욱이 편찬자의 설명을 통해 익힌 여러 가지 특질 항목 중의 어느 하나를 발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는 결국 평면적 줄긋기에 가깝다. 혼합식 구성 또한 궁극적으로는 연역식 구도의 한계 안에서만 작동되며, 귀납식 구성의 한계도 고스란히 내포하게 된다. 다만 표면적으로는 단계성을 바탕으로 다소 촘촘하게 학습자의 활동을 안내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계가 정치하다는 이점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 5. 전통과 특질 관련 교육 담론 분석의 결론과 전망

교과서에 대한 이상의 검토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과 특질의 관계가 모호하게 진술되어 있다. 그렇지만 교과서의 설명이나 학습 활동 구성을 통해 그 관계를 유추는 해 볼 수 있다. 전통과 특질의 관계는 일단 다음과 같이 논리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특정한 자질이 과거의 문학과 현대의 문학에 공통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우리 문학의 한 특질이다. 그리고 그것이 곧 문학사적 연속성을 보여주는 증거이므로 전통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전통과 특질’ 혹은 ‘특질과 전통’은 지금과 같이 A와 B가 대등하게 이어지는 구문으로 연결될 수 없다. 이런 논리를 반영한다면 ‘X라는 특질의 전통’이라는 구문이 자연스럽게도 정확하다.

둘째, 그렇다고 하더라도 X라는 특질을 초점화하면 그것은 언제나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개별적 실체로서 각각 존재

하는 과거의 문학 작품과 현재의 문학 작품에서 공통점을 찾아내는 일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와 현재의 문학 작품 사이에서만 가능한 일이 아니다. 우연에 의해 발견될 가능성이 크겠지만, 우리의 옛것과 서양의 현대 작품 사이, 우리의 현대 소설과 베트남의 설화 사이, 아프리카의 구전 민요와 우리의 대중가요 사이에서 공통점 찾기가 무망할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한과 신명, 은근과 끈기, 풍자와 해학, 여성 화자의 목소리가 없는 문학적 문화권은 과연 있거나 하겠는가? 그런데 이를 한국 문학의 특질로 규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의적이다. 그것이 한 문학적 문화권의 특질로 규정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웃음으로 눈물 닦기’<sup>21)</sup>의 사례처럼 그 고유의 양상이 논리적으로 명명되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과서에 소개된 특질의 항목들은 이러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는 기원적으로 전통과 특질에 대한 학술 담론에서부터 내재되어 있던 문제점이었다. 교육과정 개정 주체들이 다소간의 유효적인 태도를 취한 것도 이러한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sup>22)</sup>

셋째, 교과서를 중심으로 살펴 본 전통과 특질 관련 교육 담론은 성취기준을 강제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사정으로 인해 대체로 형식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선행 교과서에 기댄 설명식 정보는 건조하면서 기계적이었고,

21) 이는 해학에 의한 비애의 차단이라는 효과를 거당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7차 교육과정 시기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한국 문학의 개념과 특질’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던 글에서 특질 중의 한 항목으로 간략하게 거론된 바 있고(한국교원대학교·고려대학교 국경도서편찬위원회, 『(중학교) 국어』 3-2, 교육인적자원부, 2003, 160~162면), 이후 다음의 책에서 집대성되어 소개되었다. 김대행, 『웃음으로 눈물 닦기 : 한국 언어문화의 한 특질』, 서울대출판부, 2005.

22) 시조와 같은 정형시의 형식은 여지없이 한국 문학의 특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언어 문화권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형식이기 때문이다. 학술 담론에서 시조의 형식 자체를 특질로 규정한 사례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어떤 언어 문화권도 고유의 시적 형식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굳이 한국 문학의 한 특질로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글에서는 전통이라는 개념의 구도 아래 시조 형식의 교육적 의의를 살피고 있어 본 논의와 관련하여 참조할 만하다. 염은열, 「전통으로서의 발견과 구성」, 『고전문학인식론의 과제: 현대 독자가 과거의 시가를 만났을 때』, 역락, 2014.

특정한 특질 항목과 그에 대한 증거로 내세우는 작품의 선정은 자의적이었으며, 그나마도 학문적 진술과는 거리를 둔 채 지적으로 정당하지 못한 위협<sup>23)</sup>조차 내포하고 있었다. 그 결과 학습 활동은 특질 항목과 작품 사이의 평면적인 줄거기에 가깝게 구성되었다. 그런 점에서 차라리 특정한 작품과 그 작품에서 엿보이는 특정한 자질을 두고 이를 한국 문학의 특질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모든 반응을 모두 허용하려는 듯한 개방적인 포즈의 한 학습 활동<sup>24)</sup>은 차라리 현명한 판단의 결과로 보인다. 이 활동은 어떤 점에서, 적어도 이 논문을 쓰고 있는 필자에게는 전통과 특질에 대한 성취기준을 실현하면서도 스스로 그 성취기준의 성립 불가능성을 비웃는 아이러니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전통에 대한 학술 담론이 발흥된 데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전통적 특질의 항목들은 기실 1950~60년대에 비평계에서 일어난 전통 단절론자들과 전통 계승론자들 사이에서 있었던 논쟁의 산물이다. 전통의 빈곤에 대한 자각<sup>25)</sup>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한국 문학의 다양한 특질들을 부상시킨 것이다. 근대로의 역사적 이행과 맞물리는 문학사적 연속성을 어떤 면에서는 실증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던 노력의 산물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러한 성과를 전면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

23) 이에 해당되는 사례는 교과서(자)의 경우이다. 여기에서는 조운제식 개념인 ‘은근과 끈기’를 두고 “은화한 균형과 조화를 존중하는 미의식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조운제의 설명에서는 ‘균형’과 ‘조화’의 개념 대신 ‘정이 은근히 나타’ 나고 물이 ‘끈기 있게 흘러가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 교과서는 원문의 의미를 왜곡하고 있는 셈이다.

24) 김창원 외, 『문학』, 두산, 2013, 233면 참조. 이 교과서에 실린 학습 활동은 <속미인곡>을 제재로 하여 설정되어 있다. 이개의 시조 <방 안에 뿔은 촛불~>을 자료로 제시하면서 <속미인곡>과의 비교를 바탕으로 공통점을 찾아내고, 이 공통점이 우리 문학의 특질이라 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를 해 보라는 지시로 구성되어 있다. 편찬 과정에서 의도한 공통점은 ‘연군지정’일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과연 이를 한국 문학의 특질이라고 확인할 이는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25) 서영채, 「민족, 주체, 전통 - 1950~60년대 전통 논의의 의미」, 『민족문학사연구』 34, 민족문학사연구소, 2007, 11~15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한 대로 직관적인 접근에 의한 특질 규정, 자의적인 특질 항목의 선택, 임의적인 작품의 선택과 연결에 의해 이루어지는 교육 내용 구성을 민족주의적 포용력으로 감싸 안고 갈 수는 없다. 근본적인 회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궁극적으로 한국 문학의 특질에 대한 규정, 나아가 이를 전통이라는 통시적 맥락으로 꿰어 보려는 시도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회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다만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수행되어 온 한국 문학의 특질과 전통에 대한 대개의 학술적 시도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 성과에 대해서도 다소 비관적으로 전망한다.

이에 마지막으로 두 가지이면서도 하나로 만날 수 있는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하나는 민족주의 담론에 편승한 전통과 특질 관련 교육 내용을 아예 삭제하거나 유보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를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과 관련된 성취기준으로 흡수하거나 이와 통합하는 것이다. 이것이 긴 우회로를 걸어온 이 논의의 결론이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숙고와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구인환, 『(고등학교) 문학』, 한샘교과서, 1992.
- 한국교원대학교·고려대학교 국정도서편찬위원회, 『(중학교) 국어』 3-2, 교육인적자원부, 2003.
- 권영민 외, 『문학』, 지학사, 2013.
- 김대용 외, 『문학』, 상문연구사, 2013.
- 김윤식 외, 『문학』, 천재교육, 2013.
- 김창원 외, 『문학』, 두산동아, 2013.
- 우한용 외, 『문학』, 비상교과서, 2013.
- 윤여탁 외, 『문학』, 미래엔, 2013.
- 이승원 외, 『문학』, 좋은책신사고, 2013.
- 정재찬 외, 『문학』, 천재교과서, 2013.
- 조정래 외, 『문학』, 해냄에듀, 2013.
- 한철우 외, 『문학』, 비상교육, 2013.
- 박종호 외, 『문학』, 창비, 2013.
- 
- 김대행, 『웃음으로 눈물 닦기 : 한국 언어문화의 한 특질』, 서울대출판부, 2005.
- 김동욱, 「아리랑과 흰 옷」, 『아리랑과 흰 옷: 나손만록』, 개문사, 1977.
- 김병국, 「한국 문학 특질론-서양 문학과 비교에서」, 『한국시가문화연구』 1, 한국고시가문학회, 1993, 25~50면.
- 김윤식, 「한국문학의 특질에 관한 논의」, 『한국학보』 10, 일지사, 1984.
- 서영채, 「민족, 주체, 전통 - 1950~60년대 전통 논의의 의미」, 『민족문학사연구』 34, 민족문학사연구소, 2007, 10~48면.
- 신동욱, 『한국현대문학론』, 박영사, 1981.
- 염은열, 「전통으로서의 발견과 구성」, 『고전문학인식론의 과제: 현대 독자가 과거의 시가를 만났을 때』, 역락, 2014.
- 조운제, 『국문학개설』, 동국문화사, 1955.
- 조지훈, 「<멋>의 연구」, 1964, 『조지훈 전집 8』, 나남, 1996.
- 한수영, 「근대문학에서의 '전통' 인식」, 김영민 외, 『20세기 한국문학의 반성과 쟁점』, 소명, 1999.

**Abstract**

## **A study on the curriculum achievement standards related to tradition and characteristic of Korean literature**

Ryu, Su-Yeol · Kim, Se-Rim · Kim, Hyung-Seok

This study examines the limitations and loopholes of “Tradition and Characteristic of Korean Literature” which is taught as obvious knowledge in the field of education. This study tries to present the question - Are characteristics of Korean literature presented in the educational discourse can be the genuine characteristics of Korean literature, and is it possible to define such characteristics through reasonable regulation. To this end, this study reviewed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literature and the criticisms of it, which had been presented by the fellow researchers. In addition, this study reviewed the limitations of the characteristic that have been conducted in the academia until now.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ntents of the past curriculum and to clarify the background and process of ‘tradition and characteristic of Korean literature’. In the history of the curriculum, importance of this objective has been highlighted. In addition, this study checks current textbooks and examines how textbooks are realizing this curriculum objective.

In the textbooks, ‘Tradition and Characteristics of Korean Literature’ are ambiguous. So far, this content has been presented according to the researchers’ personal perspectives. In education, this curriculum objective has been formally addressed because it must be reflected.

The objective of education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literature should be fundamentally reviewed again. It can be removed or integrated with educational objectives on universality and specificity of literature. There should be further discussion on this.

⊕ **Key Words**

tradition and characteristic of Korean literature, subtleness, patience, sublimeness, humor, Han(恨), feminine voice, academic discourse, educational discourse